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모병제 도입은 어떤가

인간 체육인을 대상으로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획득해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경우 국제 예술 경연대회 2회 이상, 국내 예술 경연 1위 입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5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역 특례 논란 없애려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병역 특례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대한체육회장은 각종 대회에 성적 누적시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을 예고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병역 특례 범위 확대에 대해 찬성 47.6%, 반대 43.9%로 반대의견도 만만찮았다. 병역 특례법이 도입된 이후 45년 동안 계속돼 오고 있는 소모적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조심스럽게 지난해 '장미 대선' 때 뜨거운 이슈가 됐던 '모병제'를 다시 떠올려 본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 '군 복무' 관련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 후보의 주장으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진 것이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후에도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다. 일상의 자율도 최

위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오는 2023년 도래하는 인구 절벽으로 생기는 부족분 5만 명부터 모병제로 전환한 뒤 이후 남북 관계를 지켜보며 점차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세계적 군사 긴장 속에서 징병제를 제도입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 한국이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겹겹 여론 조사에서도 현행 징병제 유지가 45%, 모병제 도입이 35%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지만 모병제 도입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급변에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북한과의 종전 선언이 이뤄지는 등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면 모병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유지 문제 역시 모병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모병제는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의 자위대도 그들이자 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다. 유럽은 거의 예외 없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는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이나 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지원자로 선발한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후에도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다. 일상의 자율도 최

대한 존중된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만큼 민감한 문제가 있을까. 신성한 국방 의무, 북한 위협 등 요란한 구호에 매몰돼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흐름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군의 소수 정예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 국방과 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국방은 최첨단 산업이다. 오늘의 새로운 무기 체계는 내일의 새로운 산업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또한 모병제는 병역 특례와 같은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더 강한 군대를 위해 느슨하고 비전문적인 다수를 버리고 단단하고 전문적인 소수로 가면 어떨까. 군이라는 직업을 통해 자야를 실현하고, 그 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 미래를 구상하는 그야말로 직업 군인들로 군을 채우면 어떨까.

적어도 우리 청년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이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냥 짓누를게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과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 할 때다.

l/lon@kwangju.co.kr

社說

산하 기관장 물갈이 위한 표적 감사 지양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산하 기관들에 대해 잇단 감사에 나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공직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민선 6기에 선임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 표적 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복지재단,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 기관 감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그 제 정례대회에서 '산하 공기업의 인사 정책 황과 비리, 무사안일, 무능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하극상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타하며 산하 기관 혁신 기획단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정밀 감사를 지시했다.

현재 광주시 산하 기관은 공사·공단 네 곳과 출자·출연 기관 20곳 등 모두 24곳

에 달한다. 이중 기관장이 공적인 곳은 도시공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그린카진흥원 등 네 곳,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광주영어방송·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 후임 기관장에는 벌써부터 이 시장의 고평·학고 후배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연제부턴가 지자체의 장이 바뀌면 임기 초반 전임 단체장 때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강도 감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인적 쇄신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사람 심기나 선거 기여자들에게 대한 보은 인사를 위해서다. 하지만 임기직 공무원은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교체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 비리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감사라는 중요한 기능을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상한 제한 꼭 풀어야 하나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 제한 규정이 풀릴 전망이다. 명분은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한 제한 규정이 풀리면 의정비가 대폭 인상될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의정비에서 가장 큰 뉘를 차지하고 있는 월정수당 제한 규정을 없앤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별 지역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권한 명확화 등인데 이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과 마찬가지로 월정수당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월정수당은 광주시의회는 경우 연 3775만 원, 전남도의회는 연 3280만 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와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각각 5825만 원과 5330만 원을 받고 있다. 월정수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해

10월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심의위가 개최돼 월정수당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가 최고 상한액 산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정비 인상에 고배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율성을 명분 삼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상 폭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초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경된 이후 지난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은 늘 지속돼 왔다. 게다가 일부 지방 의원들의 불법 행위는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해 왔고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터다. 따라서 자율성도 좋지만 무분별한 월정수당 인상이 되지 않도록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와 관련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환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고성혁 시인

폭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 고양이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동네 할머니들이 고양이가 병아리들을 잡아먹는당개,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닭들을 놓아먹다가 지난 4년 동안 스무 마리의 닭들을 잃었으면서도 그 이유를 산짐승들이 가끔씩 출몰하기 때문이라고만 여겼다.

고양이가 큰 닭들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건 중요한 문제였다. 다시 며칠 뒤 풀어놓은 닭들이 격정대 유리창을 넘겨 보다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놈, 겁정고양이가 노랑 암탉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고 뒷발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팬티 바람입에도 대성일갈, 놈의 뒤를 쫓았다. 벼랑같이 방문을 열고 나갔지만 놈은 사라지고 물러가던 암탉만 산비탈에 놓여 있었다. 암탉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다가 이내 생을 마감했다.

그 모양을 보던 나는 대노했다. 뒤란에 묶어 키우던 진돗개를 풀었다. 쇠! 물어라, 곡순아! 개는 고양이를 쫓아 산속을 몇 번인가 뛰어다니다니 이내 마당으로 달려갔다. 더 큰 사단은 그때 벌어졌다. 마당에서 푸닥다, 닭들이 쫓기는 소리와 함께, 빨리 나와 봐요! 라고 외치는

내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뛰어가 보니 그곳에는 죽은 닭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날 고양이가 한 마리, 개가 세 마리의 닭들을 죽였다. 개가 죽인 닭 중에는 내가 아끼던, 빛깔 고운 큰 수탉도 포함돼 있었다.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수탉을 보며 가슴아파하다가 문득 이 사단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했다.

모든 것은 고양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양이라니, 고양이는 애완용이었고 그것을 받기만 한 사람이었다. 고양이뿐인가. 피서를 떠나기 위해 하루 300마리 이상의 애완견이 유기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 라고? 잘못된 사람에게 있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라니. 지구 온난화와 폭염, 물고기 위장 속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들, 하와이 해변에 쌓이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수탉의 피로부터 전해져 온 울림 때문이었을까,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나는 그런 인간의 오만에 대한 생각이 한참이나 사로잡혀 있었다. 수탉을 보며 그

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열기를 이기지 못해 방으로 들어왔다. 의지에 날파괴 같은 곤충이 있었다. 그것을 잡아 들었다. 순간 엄지손가락에 엄청난 통증을 밀려왔다. 말벌이었다. 상처 부위를 문지르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더 시작하라는 '경고'임을 깨달았다. 사람이 문체고 사람의 문제이니 사람이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익명의 그늘에서 타인만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광주는 어떤가. 광프리카, 광주, 가장 열대야가 많은 도시가 아닌가. 우리 세대는 관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지구와 함께 파멸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 징후는 너무나 많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밤안에 우뚝 서 나는 뜬금없이 더위와 함께 세상을 등진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게 청소 아주머니들의 새벽 출근버스 6411호를 알게 해 준 노회찬과, 밤야말로 우리의 선생임을 일깨워준 황현산. 원칙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린 이분들의 삶을 공부하면 그 실천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곧 믿음으로 바뀌었다.

기고



전준산 광주시 서구 화정로 49번길

광주 세계수영대회와 발레 페스티벌

에서 1976년 창단된 국내 유일의 공립 발레단으로서 광주 시민의 문화 향유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 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한·중 공연예술제를 통해 국제 문화 예술 교류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발레 대중화를 위해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발레'로 국립발레단과 한국 발레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최태지 예술감독을 영입했다. 국립발레단 객원 무용수 및 정식 단원, 최연소 단장 및 예술감독, 국립예술기관 정동극장장, 프랑스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한국의 첫 심사위원, 아시아문화원 이사 등 다양한 경력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사흘간 가장 대중적이면서 세계 발레 역사의 최고의 작품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안무가인 우리 그리고로비치의 '백

조의 호수'를 광주문화예술화관에서 공연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이를 통해 광주시립발레단의 수준 높은 발레 역량을 보여주었고, 1980년대 광주발레의 위상을 재연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에서 이어 세 번째다. 또 우리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개최된다. 마스코트는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제330호) 수달을 남녀 한 쌍으로 의인화한 수리와 달이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함께하

고, 문화수도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예술 행사가 많이 필요하다.

먼저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국립발레단과 러시아·프랑스 등 세계적인 발레단을 초청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발레를 보여주고, 초·중·고, 대학생 대상 국제 발레 경연 대회를 통해 문화 수도 광주의 위상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권의 월봉서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과 연계한 발레교실, 마켓 운영 등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접목한 광주의 관광 자원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 수도 광주의 발레 페스티벌은 단순한 문화 예술 행사가 아니다. 국가적인 대형 스포츠 행사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선수와 관람객에게 대한민국과 예향의 도시 광주의 수준 높은 발레 축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시설인 아시아 문화전당과 5대 문화권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

無等鼓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48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제는 일정한 연령이 된 남성이라면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 병역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6·25 전쟁 이후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국가라는 점에서 병역의 의무

병역 의무

다.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된 일본과 대만을 꺾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기에 더욱 그렇다. 프로선수로 거액을 벌면서 세계대회도 아닌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혜택까지 손쉽게 받으려는 모습이 국민을 화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이뤄지고 있다. 팝의 본고장 미국의 권위자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1위

정상을 차지한 것은 분명히 국위를 선양한 것이라는 이유다. 현재 특례 대상이 체육인과 순수 예술인 으roman 한정된 데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자만 총 42명이라고 하니 반발할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체육·예술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역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원칙인 만큼 국민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